*영어어문교육, 15*권 **1**호 **2009**년 봄

교육연극을 활용한 미국 드라마 수업*: 상관 분석을 통한 수업 사례

이용희
(강원대학교)

Lee, Yonghee. (2009). Making meanings with students of American drama and film arts class through educational theater: A case study based on correlation analysi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5*(1), 251-269.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educational theater techniques such as staging a play in class would encourage students' process of making meanings out of a play. Based on constructivistic perspectives, this study claims educational theater creates the opportunities in which students experience self-directed learning about the plays and their characteristic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of 33 students who took my class, American Drama and Film Arts. The findings show that most of students satisfied with the class enjoyed the process of staging play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students who favored the methodology of educational theater agreed that the creating process enhances their understanding of play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data, students with satisfaction in class demonstrated changed perspectives on theatre art as accessible one.

[educational theater/constructivistic perspectives/teaching American drama, 교육연극, 구성주의 관점, 미국 드라마 교육]

I. 들어가며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은 문학을 가르치는 모든 교육자면 누구나 고민하며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모색하게 만든다.『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책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문학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 본 연구는 2008년 강원대학교 신임교수 연구 지원비를 받아 진행된 연구임

> 문학교육이란 학생들에게 문학적, 예술적 체험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학의 예술적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나 문학 감상에 대한 관심,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체득하도록 한다(김창원, 2001, pp. 6-7).

문학교육과 직접적인 학습활동과의 연계성, 그리고 그 중요성은 위의 책에서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니다. 최근 교육 패러다임으로 인지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구성주의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학습자가 주체적인 의미 산출자가 되어 자기 주도적으로 타인들과 협상하면서 의미를 구축해가는 방법론이 많은 교육적 실천의 기저 이론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에 해석 위주의 전통적인 문학교육법을 답습해오고 있는 영문학계에서도 그 효용성과 교수가능성을 활발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구성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전제 중에 하나가 "의미란 개인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창조하는 방법의 함수"이다(방영주, 2006, p. 190). 즉, 학습자는 교육의 장에서 수동적인 지식 체득자가 아닌, 의미 생산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새로이 습득된 지식이 접점을 이루고 그 공간을 공유하는 다른 학습자들과의 의미 협상 끝에 학습자에겐 사회성이 포함된 개인적인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다[1]. 이러한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미국 드라마 수업에 활용하고자 했을 때, 본 연구자에게 떠오른 방법론이 바로 교육연극이었다.

교육연극이란 educational theater라는 용어로 한국에 알려져 있으며 1900년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교육 방법론이자 교육방법이다[2]. 교육연극은 "행함으로써 배우는 것"이 진정한 앎이라고 강조하면서 연극이라는 매체를 교육수단으로 활용하여 학습자의 "이해의 성장"을 도모한다(정성희, 2006, p. 231). 다음 표는 정성희가 비교한 구성주의 교육관과 교육연극에서 제안하는 교육관이다. 본 논문에서는 두 교육관들이 지닌 유사점을 바탕으로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교육연극 방법론이 제시하는 활동들을 통해 그 가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1
구성주의 교육관과 교육연극 교육관 비교

구성주의 교육관	교육연극 교육관
구체적 맥락 내에서 지식 전달	구체적 상황맥락에서 과정 지향적 활동

[1] 강인애, 최정임, 장경원 (2006), "구성주의 연구에 회고와 전망: 국내외 연구동향 비교." 참조.
[2] 정성희, 한귀은, 민병욱, 심상교 글 참조

교사-학생, 학생-학생의 상호작용 중시	사회적 상호작용 강조하는 사회적 예술활동
지식 구축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학습자 역할 강조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활동으로 구성

본 연구자는 학습자들과 완성도 높은 결과물 추구보다는 드라마라는 활자매체가 공연이라는 시공간적 예술로 전환됨으로써 생기는 간극을 학습자 스스로가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드라마와 연극의 특성과 해당 드라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학습목표로 삼았다. 그 목표를 위하여 모둠을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생산해낸 의미들을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활동, 즉 공연 만들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교육연극을 교육방법으로 채택한 것이다. 특별히 학습자의 자기 주도성을 고려했을 때, 드라마교육에서 교육연극 기법을 이용한 공연 만들기 과정은 드라마가 지닌 문학성과 연극성을 동시에 체득할 수 있는 방법임은 자명하다.

이수동(2007) 논문에서는 “신체화된 인지적 구성주의”인 교육연극을 기반으로 한 문학교육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한다(p. 130). 그동안의 문학교육은 문자언어 중심의 해석에 그쳤다는 비판(황정현, 2006; 이수동, 2007; 김경한, 2006; 어도선, 2004; 최성희, 2006; 김인표, 2002; 정문영, 2006; 김문기, 2006; 우미성, 2006)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영문학과에서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쓰여진 미국 드라마를 가르치는 데 많은 시간을 해석위주의 강의에 투자해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에 황정현은 “연극성은 실제로 해 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희곡문학의 특성으로, 연극적 재능이 있는 특정한 사람을 교육시켜 ‘보여주기’ 위한 연극교육”(p. 112)과는 구분해서 공연이라는 결과가 드라마교육의 목표가 아닌 작품이해를 위한 “과정”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p. 126). 드라마교육의 완성이 공연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황정현(2006)은 공연 만들기라는 활동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교육”(p. 129)이란 점 또한 강조한다. 즉 전문연극인이나 대학에서 연극전공학생들이 올리는 공연이 아닌, 모든 학습자들이 즐겁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한 편의 공연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하고 그 해당 드라마에 대해 능동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매체로서의 연극을 의미한다.

이미 드라마 기법을 통한 영어교육 관련 논문들은 무수히 발표된 상황이라,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영어 능력향상과 공연 만들기와의 관계성 그리고 영문학을 통한 영어 능력향상의 효율성[3]을 논의하겠다. 대신에 과정과 학습자

[3] Tae-Eun, Kim. What research says about using literature for English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4*(3), 155-181, 2008. 이 논문에서는 1998년

주도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연극 기법을 활용한 드라마교육의 선행연구를 검토해봤을 때, 대부분의 연구가 교육대학원 중심의 논문들과 국어교육에 편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미드라마교육에 공연 중심의 수업사례보고서와 영미드라마 교육론에 대한 문제점을 다룬 관련논문들이 소수 발견되었다[5]. 선행연구들과의 변별성을 두기 위해 본 연구자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교육연극 방법론을 가지고 미국 드라마 수업시간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학습자의 수업방식 만족도와

부터 2007년 사이의 영어교육관련 7개의 저널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영어교육연구 중 문학작품과 관련있는 논문을 조사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4] 김남희. *교육연극을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김순자. *희곡 창작 및 극화 수업 지도 방법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김현정. *중등학교 희곡지도 방안 연구-실제 공연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희라. *공연중심의 희곡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나윤정. *교육연극을 통한 희곡지도 방법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노정. 교육 연극을 활용한 희곡지도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상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소재 희곡의 지도방법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박미경. 국어과의 교육연극 활용에 대한 연구: 실업계 고교를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박애경. *희곡 교재의 교육연극적 지도 방안 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정희. *희곡지도법 연구: 극화수업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변윤정. 역할놀이를 활용한 희곡교육. *국어교육연구, 33*, 2001.
신동구. *연극놀이를 활용한 희곡지도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유진희. *연극교육을 통한 국어·문학교육의 수업 방안*.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언정. *학습자 상호작용을 위한 희곡 지도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수동. *교육연극을 기반으로 한 문학교육 연구*. 경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 학위논문, 2007.
한귀은. *문학교육의 교육연극론적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황정현. 국어교육과 교육연극의 방법과 실제. 박이정, 2004.

[5] 김문기. 공연중심의 셰익스피어 극 교육론: 쟁점과 대안. *영미문학교육, 10*(1), 5-24, 2006.
조광순. Class Performance를 통한 셰익스피어 가르치기. *영미문학교육, 6*(1), 187-191, 2002.
정문영. 공연교수법을 통한 영미드라마 가르치기. *영미문학교육, 10*(1), 45-66, 2006.

드라마이해와의 상관관계 및 연극의 접근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고에서는 영어교육의 관점이 아닌, 영문학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연극과 학습자의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다룰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방법으로서 교육연극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와 수업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학습자의 수업방법 만족도와 해당 드라마의 이해도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학습자의 수업방법 만족도와 연극에 대한 접근성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영어영문학과 전공선택 과목인 미 드라마와 영상예술을 수강한 41명 중 설문에 응답한 33명[6] (남학생 9명, 여학생 2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특히 본 연구가 진행된 2008년 2학기에는 82%의 전공 학생 외에 18%의 타 전공자나 복수전공자들로 구성되어있어 교수법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기대할 수 있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15번째 주 수업평가 시간에 실시한 설문지 응답에서 얻어 냈다. 모두 22개의 질문들로 되어있으며 일반적인 수업만족도부터 교육연극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까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준비과정은 편안하고 즐거웠는지, 자신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공연이었는지, 모둠원들간의 친밀도는 변화가 있었는지 등이다[7]. 22개의 질문 중에서 가장 교육연극의 특징 및 요소를 드러낼 수 있는 대표적인 질문들

[6]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8명 중 3명은 마지막 수업날인 15째주에 출석을 안한 학생들이고, 2명은 직장인터뷰를 간 4학년생, 3명은 출석했지만, 설문지에 불응답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7]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 첨부한 설문지 참고

(학습자 주도적 수업 만족도, 연극실행의 효과성 인정, 공연준비와 공연의 중요성 인식)과 직접적인 수업만족도 질문--이 수업에 만족하는가?--그리고 간접적인 수업만족도 질문--즉, 타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과목인가?--을 통해 그 상관관계를 증명해보고자 한다. 위 질문들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카이제곱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3. 강의 구성 및 절차

매주 수요일 3시간의 수업이라 영화버전이 있는 미국 드라마를 주로 선택하여 시청각 자료를 보조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영화가 2시간 이상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어 2시간짜리 전공 수업에서는 전부 감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수업 특성상 3시간으로 편성하여 영화를 보고 토론까지 가능한 시간이라 좀 더 깊이있고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미국 드라마와 영상예술”이라는 강좌이름에 부합하여 영상화 되어있는 희곡작품을 통해 학생들이 희곡의 영상예술화를 경험케 하는 것이 교육목표 중 하나라 영화버전이 있는 희곡을 우선적으로 찾아보게 되었다. 하지만, 영화로 제작된 희곡들은 대부분 “정전”이라는 카테고리 안의 작품들이라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현 미국드라마를 모두 대표하기 힘들었다. 수업에 사용할 작품 선정이 본 연구자에게 특히 중요했던 이유는 한두 수업시간 내에 배우고 끝나는 텍스트 학습이 아니라, 학기동안 학생들 스스로가 텍스트를 무대화하는 의미생산/창조 과정을 중시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흥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해야 했다. 우미성(2006)은 커리큘럼을 짜는 교육자가 작품선택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가르칠 작품의 내용만큼이나 형식의 다양성도 안배해 주류 작가들의 극작술이나 미학을 그대로 답습하는 작품을 배제하고 내용을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플롯과 혁신적인 극작 전략을 시도하는 작품의 소개”(p. 39)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자 또한 전적으로 동의하기에 소수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또한 선별할 필요를 느꼈다. 짤막하고 흥미로운 작품들을 생각하다 다른 영문학과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수잔 글래스펠(Susan Glaspell)의『Trifles』와 지배계급에 대한 위트있는 반전의 묘미를 가진 루이즈 발데즈(Luis Valdez)의 『Los Vendidos』, 그리고 최근 몸짱, 얼짱 열풍에 맞물려 많은 이야기를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브 엔슬러(Eve Ensler)의 『The Good Body』를 선택했다.

작품은 처음에 총 6개로 선정하였고-모둠을 6개로 만들 생각이었음-3주 정도의 집중적인 공연 만들기 시간을 할애하는 강의계획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공연완성도에 대한 욕구과 시간부족의 갈등 속에 마지막에 다루기로 했던 『The Good Body』는 아쉽게도 수업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다음의 드라마들이 수업시간에 다루어졌다: Susan Glaspell,『Trifles』, Thronton Wilder,『Our Town』, Tennessee Williams,『Cat on a Hot

Tin Roof』, Arthur Miller,『Death of a Salesman』, Luis Valdez, 『Los Vendidos』.

15주의 강의계획안에 5편의 드라마와 3편의 관련영화[8]를 다루다 보니, 11번째 주가 되어서야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택한 드라마를 공연화하기 시작했다. 이미 첫 수업시간부터 모둠을 편성해 본 연구자의 간단한 드라마 내용 설명 후 학생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드라마를 선택한 상태였다. 본 연구자는 매 수업시간마다 20분 정도의 모둠 시간을 주어 교육자의 강의진도와는 별개로 학생들 주체적으로 읽어가는 드라마에 대해 미리미리 모둠 구성원들과 상의하고 공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장하였다. 15분이라는 공연 제한시간이 있어 드라마 전부를 공연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가장 의미있고, 공연으로 만들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야 했다. 본격적인 공연 만들기 시간이 주어지는 11번째 주 전까지 학생들은 대본 편집과 각색을 하고, 배역을 정하고, 모둠별 시간에 등장인물의 성격을 입혀 읽어보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각 모둠을 돌아다니면서 진행 정도를 체크하고 연기연습을 도와주거나, 편집된 영어 대본을 수정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III. 결과 분석

본 연구는 교육연극이라는 방법을 활용했을 때 학습자에게 미국 드라마의 이해와 수업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연극에 대한 접근성을 배양할 수 있는지 그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이다. 설문지를 통한 빈도수 조사에 의하면 97%[9]의 학습자가 수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습자 본인의 교육연극 실행과정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97%가 열심히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고 강의 위주의 수업보다 학습자 주도적인 수업이라 배운 것이 많았다는 설문문항에 91%[10]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연극의 바탕이 되는 요소들을 평가하는 질문들로는 긍정적인 분위기의 공연준비과정, 자신의 의견 반영도, 모둠원들끼리의 친밀감 증대가 있었다. 아래의 그림 1에서 91%의 학습자들이 공연준비과정이 편하고 즐거웠으며 남은 9%의 응답자들도 보통이다라고 대답해 모두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활동했음을

[8] 와일더, 윌리엄스, 밀러의 작품 영화버전을 의미한다.

[9] 설문지 문항은 5개로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스케일이다. 그 중 긍정적인 답을 보이는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의 비율만 본고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10] 대체로 다른 설문문항의 경우 긍정적인 반응과 보통이다라는 반응으로 설문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이 문항에 대해서는 6%나 되는 학습자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아마도 수동적인 강의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자기주도적인 수업방식이 적잖이 힘들어 나온 결과가 아닌가 싶다.

알 수 있다. 모둠이 적게는 6명, 많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의 의견 반영도를 질의하는 것이 과정과 의미생산자 역할을 중요시하는 교육연극 평가에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림 2에서 67%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응답했으며 30%의 학생들은 보통이며 3%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모둠인원이 큰 경우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4주라는 짧은 공연 만들기 기간[11]도 부정적인 응답의 요인 같다.

그림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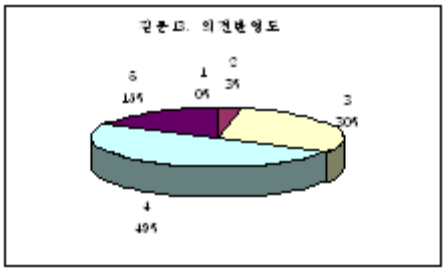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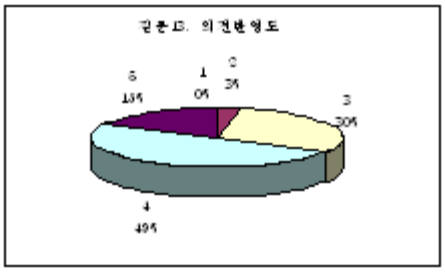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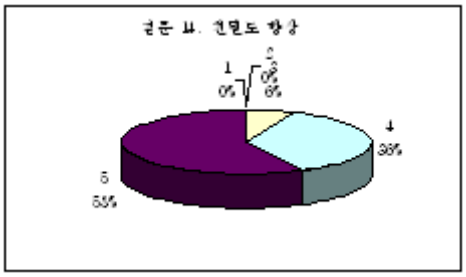


그림 3은 공연 전후를 비교했을 때, 모둠구성원간의 친밀도가 향상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질문이다. 빈도수를 보면, 부정적인 응답은 나오지 않았으며 94%의 긍정적인 반응과 6%의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공연준비 과정이 편안하고 즐거웠으며 자신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공연 만들기 과정이다보니, 자연스럽게 친밀도가 향상되었던 것이다. 이런 1차적인 결과를

[11] 본격적인 공연 만들기는 4주간 이루어졌다. 4주가 짧다는 의미는 4번의 공식적인 3시간짜리 수업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커다란 틀은 이전 수업시간들을 통해 교육자의 주재(駐在) 아래 이루어졌으며 별도의 시간은 학생들끼리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교실외의 장소에서 만나 공연완성에 힘썼다고 한다.

[12] 그림의 스케일은 5-매우 그렇다, 4-그렇다, 3-보통이다, 2-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지 않다로 분류되어 있다.

바탕으로 수업방법으로서의 교육연극과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피어슨 상관통계를 통해 논의하겠다.

1. 수업방법으로서 교육연극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와 수업 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설문문항 6와 9, 6과 16, 6과 18, 그리고 19과 9, 19과 16, 19과 18)

빈도수 조사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연극실행이 드라마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임에 88%가 긍정적이었고, 강의위주보다 학습자 주도적 수업이라 학습효과가 더 좋았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이 91%가 되었다.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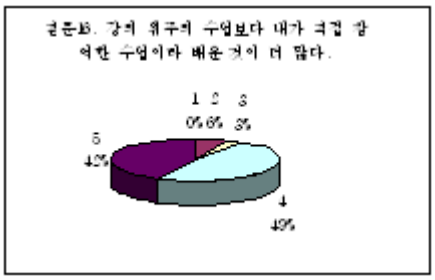


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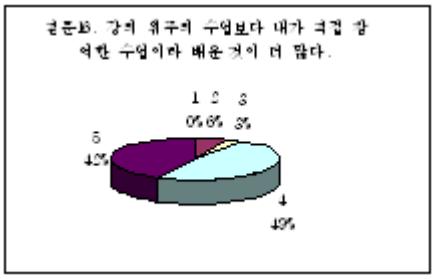


표 2
수업방식 만족도와 직접적인 수업만족도의 상관관계

	수업만족도(전반적인 수업평가) N=33
연극실행의 효과성 인정	.547**
유의확률 (양쪽)	.001
학습자 주도적 수업 효과성 인정	.409*
유의확률 (양쪽)	.018
연극준비와 공연의 중요성	.336
유의확률 (양쪽)	.056

** p <.01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인 수업 만족도와 교육연극이라는 수업방식의 만족도를 알 수 있는 3가지 질문 중에 2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수업에 만족하는 학습자들은 연극실행이 드라마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정했고 또한 교육연극의 중요한 요소인 학습자 주도적

수업과 수업만족도와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에 수업의 1/3를 차지하면서 이루어졌던 연극준비와 공연의 중요성과 학습자의 수업만족도와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수업만족도와 연극실행의 효과성을 인정하는 것과의 상관계수(*r*=.547)가 학습자 주도적 수업이라는 방식과 수업만족도와의 상관계수(*r*=.409)보다 더 크게 나와 전자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정적 관계성을 갖고 있음이 보여졌다. 후자의 관계성이 덜한 이유를 고려해 봤을 때, 이는 파울로 프레리(Paulo Freire 1994)가 비판했던 교육자와 학생간의 관계인 은행과 저축 개념 (banking concept, p. 57)처럼 학습자들이 아직도 수업이란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동적 의식에 기인한 것 같다[13]. 전통적인 강의법에 익숙한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할애한 본 연구자의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자신들의 선택이나 결정에 대한 교수의 확인과 의견이 더 필요하다. 이에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주 학생들과 그 진행절차를 상담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의 표 3은 수업만족도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이 아닌, 본 수업수강 추천여부를 묻는 수업만족도 관련 질문과 교육연극 실행에 대한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자신들은 더 이상 연극 안해도 된다는 안도감, 다른 학생들도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하는 장난기 등등--설문문항 6번인 전반적인 수업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상관계수 *r*=.754의 강한 관계성이 나타남으로, 본 연구자는 수업추천 동기를 건설적으로 보아 수강생들이 진심으로 수업에 만족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기꺼이 추천해주고 싶어한다고 간주했다.

표 3

수업방식 만족도와 간접적인 수업만족도의 상관관계

수업만족도 (추천해주고 싶은 과목) N=33	
연극실행의 효과성 인정	.587**
유의확률 (양쪽)	.000
학습자 주도적 수업 효과성 인정	.561**
유의확률 (양쪽)	.001
연극준비와 공연의 중요성	.503**
유의확률 (양쪽)	.003

** p <.01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연극실행이 드라마를 배우는데 효과적이라고 인정하는 학습자들이 본 강좌를 타인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는 강한 상관관계

[13] 교육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빈도수 조사에서 88%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r*=.587)를 보여주었다. 또한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학습의 장에서 의미생산자의 역할을 했던 것과 수업만족도와의 관계를 보았을 때, 그 상관계수는 *r*=.561로 유의미함으로 학습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 과정과 결과에 만족한다는 사실은 입증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응답으로 본 강좌에서 가장 의미있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활동을 공연과 공연준비라고 생각한 학습자들과 수업만족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503).

2. 학습자의 수업방법 만족도와 해당 드라마의 이해도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설문문항 9와 10, 16과 10, 18과 10)

최성희(2006)는 드라마 교육에서 연극실행이란 “드라마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읽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드라마 텍스트와 대립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닌 텍스트를 “가장 깊고 강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p. 70)이라고 말하고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의미 답습자였던 학생들이 연극실행을 통해 주도적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타인들과 의미를 타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육연극을 “신체화된 인지적 구성주의” (p. 130)라고 말했던 이수동(2007)은 구성주의 이론을 드라마적 인지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실제 세계의 모방이라는 허구적 공간 속에서 학습독자의 연행이라는 제 1 메타 텍스트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문학텍스트 속의 화자와 동일시라는 허구적 정체성을 경험한다. 그런가 하면 학습독자는 연행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허구 공간에서 현실공간으로 빠져 나오는 소원화를 통해 허구 공간의 사건과 인물을 비판하게 되는데, 학습독자는 이렇게 하여 산출된 제 2 메타 텍스트를 통해 반성적 사고를 하기도 하는 것이다(p. 132).

제 2 메타 텍스트 산출에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은 본 연구자의 설문지에 포함되어있지 않다. 반면에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의미를 생산하고 신체를 통해 연행한 제 1 메타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과정”에 중점을 두어 문자해석 위주의 수업방식을 탈피하고 모둠활동 안에서 다른 개인들과의 의미협상을 거쳐 한 작품에 대한 또 다른 해석과 의미 생성이 가능함을 직접 체험하는데 교육과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학습자들과 교육자의 공연평가가 다르게 나왔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평가자에 따라 같은 공연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실례였다. 비판적 페다고지의 모순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교육학 이론가 엘리자베스 엘스워스(1997)는 다음과 같이 사회적, 문화적 다름을 가르치는 교육(teaching)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에 도전한다:

> 사회적, 문화적 다름을 교육한다는 것은 결코 우리 사이의 다름을 연결하고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다름에 대한 교육은 또 다른 다름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문화생산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p. 139).

본 연구자는 엘스워스 생각에 공감하면서 교육은 한 가지 생각과 의견을 배양하는 것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진행형의 지식 구성을 돕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간단한 공연평가이지만, 학습자도 평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자와 학습자 사이에 평가와 해석의 다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학습자 주도적 교육의 연장선이 될 수 있게 했다. 그 예가 다음의 사례이다. 본 강좌는 6개의 모둠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세일즈맨의 죽음』을 담당한 모둠은 두 팀이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DVD를 쉽게 구할 수 있어 이 두 모둠은 영화버전과 거의 유사한 공연을 올렸다. 공연의 창의성과 드라마 해석 및 의미창출의 창의성이 없어 본 연구자는 이 두 모둠에게 낮은 점수의 평가를 했다. 하지만, 다른 학습자들은 DVD와 유사하게 잘 묘사하여 이해가 쉬웠다는 점[14]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이에 반해, 『뜨거운 양철 지붕의 고양이』를 담당한 모둠에서는 DVD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뮤직 비디오를 만들어 냈다. 음악에 조예가 깊은 학생이 있어 드라마를 읽다가 떠오른 팝송에 드라마 주인공들을 등장시켜 뮤직 비디오를 만든 것이다. 드라마에서 두드러진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갈등장면들을 삽입시켜 어떤 드라마를 배경으로 했는지 확연히 드러났다고 본 연구자는 믿었고, 그 창의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둠의 작품은 다른 모둠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교육자가 허용한 공연형식과 해석의 “자유”가 정형화되고 획일화된 형식과 해석에 길들여진 학습자들에게 어렵고 난해하게 느껴졌나 싶다. 이런 점수의 상대적 차이를 모든 학생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의 공연을 가지고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듯이 텍스트와 그것의 공연화에도 다양한 의미산출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런 과정을 장려했다.

공연예술 이론가인 패트리스 파비(1992)는 텍스트와 공연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미쟝센은 텍스트를 단순히 무대 언어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무대와 극적 긴장에 놓이게 하는 일종의 이론적 맞춤행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무대 위에서의 발화가 텍스트에 도전하고, 텍스트와 공연사이의 해석상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14] 이것은 설문지에 없는 문항으로 본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소수의 학생들을 인터뷰하면서 얻어낸 자료이다. 양적인 자료가 없어 도표화 하지 못했다.

> 텍스트를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향해 열어 놓는다[15](p. 30).

연극 실행은 텍스트를 무대 위에 재현해내는 행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들 간의 의미협상의 결과이며 활자매개체를 3차원의 시공간으로 옮겨놓는 과정에서 드라마라는 텍스트와 연극이라는 매체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위의 예를 보았을 때 시청각 자료에 의존했던 모둠들은 이미 창출된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 모방(mimic)하는데 그쳤지만, DVD같은 시청각 자료를 구할 수 없었던 『Trifles』와 『Los Vendidos』의 경우는 학습자들이 "텍스트와 공연사이의 해석상의 순환"(Patrice, p. 30)을 더 윤활히 체험함으로써 『세일즈맨의 죽음』보다는 자신들의 창의적인 해석이 반영된 공연을 만들어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영상물을 수업보조용으로 사용할 때는 학습자의 창의성과 텍스트에 대한 주체적인 해석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그러면 교육연극의 실행으로 학습자들의 드라마 이해도는 향상되었을까?

표 4
수업방식 만족도와 드라마 이해와의 상관관계

드라마이해 증진 N=33	
연극실행의 효과성 인정	.603**
유의확률 (양쪽)	.000
연극준비와 공연의 중요성	.544**
유의확률 (양쪽)	.001
학습자 주도적 수업 효과성 인정	.634**
유의확률 (양쪽)	.000
드라마이해 증진	
교육자의 개입	.040
유의확률 (양쪽)	.823

** p <.01

표 4에서 수업방식 만족도를 의미하는 연극실행의 효과성 인정, 연극준비와 공연의 중요성, 학습자 주도적 수업 효과성 인정은 드라마이해도 향상과의 관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연극실행을 통해 학습자들은 해당 드라마를 더 적극적으로 이해했으며 교육자 강의위주의 수업이 아닌

[15] 공연 중심의 셰익스피어 극 교육론(김문기, p. 11, 2006)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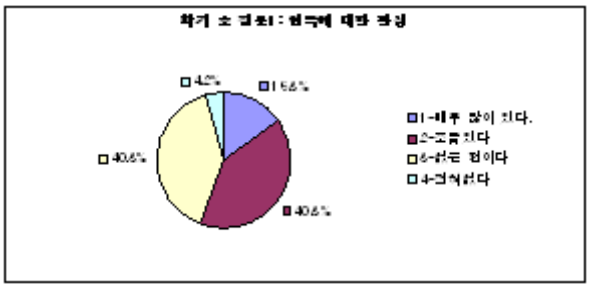
학습자 중심의 수업방식이 드라마 이해를 도왔음을 알 수 있다.

표 4 하단에 첨부한 교육자 개입과 드라마이해도와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설문 문항 17번인 공연 만들기 과정에 교육자의 개입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빈도수 조사에는 88%의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교육자 개입의 필요성과 드라마이해와의 상관관계에는 r=.040로 낮은 관계성을 보이는 것이다. 공연의 완성도를 더 높여 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수업시간 중 교육자의 연기법 지도 등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그래서 교육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으로 나온 것 같다. 반면, 교육자의 개입과 드라마이해와의 낮은 상관계수(r=.040)와 학습자 주도적 수업과 드라마이해도와의 높은 상관계수(r=.634)를 대조해 볼 때, 학습자들은 교육자의 더 많은 개입이 아닌, 해당 드라마에 대해 능동적으로 의미를 생성하고 모둠구성원들과 공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드라마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을 체험했다고 볼 수 있다.

3. 학습자의 수업방법 만족도와 연극에 대한 접근성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설문문항 15와 9, 15와 16, 15와 18)

다음 그림 6[16]은 본 연구자가 담당하는 대단위 교양강좌, 극예술의 이해 시간에 학생들의 일반적인 연극에 대한 관심을 물었던 질문의 결과다. 이들의 연극관심도는 양극으로 나뉘어져 나타났다(있다:55.6% 없다:44.5%). 15.3%에 해당하는 연극에 많은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전에 연극무대경험이 있는 학생들이고, 조금 관심이 있는 학생들(40.3%)은 연극(특히 뮤지컬)을 간접적으로 접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다.

그림 6



이처럼 많은 학생들에게 연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예술’이고 ‘나는 연극을 소비하는 사람’ 또는 ‘나와는 별개의 예술’로 인식되어왔다. 교육

[16] 이 그림은 본 연구자가 2007년에 실시한 설문지 응답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방법으로 연극을 수업 중에 연행해 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래서 서로가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는 주류 연극계의 관행을 재생산하지 않는다는 거부와 저항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최성희(2006, p. 71)는 주장한다. 따라서 교육연극을 수업 중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연극이라는 예술매체에 대한 접근성[17]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5
수업방식 만족도와 연극의 접근성 상관관계

연극의 접근성 N=33	
연극실행의 효과성 인정	.562**
유의확률 (양쪽)	.001
연극준비와 공연의 중요성	.471**
유의확률 (양쪽)	.006
학습자 주도적 수업	.759**
유의확률 (양쪽)	.000
연극의 접근성	
교육자의 개입	.005
유의확률 (양쪽)	.978

** p <.01

위의 표 5를 살펴보면, 수업방식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3가지 문항과 연극에 대한 접근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특별히 연극에 대한 접근성은 교육연극이라는 방법을 활용해 학습자 스스로가 의미를 구축하고 모둠 구성원들과 그 생성된 의미를 타협하고 공연을 만들어 가면서 드라마를 접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남을 증명해준다(상관계수 r=.759). 즉 행함으로써 배우는 것(learning by doing)을 입증해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자의 개입과 연극의 접근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상관계수 r=.005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학습자는 교육자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공연준비와 공연보다, 본인 스스로 연극을 준비하고 연행함으로써 연극이라는 매체에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동안 전통적인 연극 소비자였던 학생들에게 연극은 소수 재능인들을 위한 결과 중심의 예술만이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과정

[17] 학생들의 연극/공연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서 미래의 연극 소비자겸 생산자를 창출해 내고자 하는 것은 연극을 전공한 본 연구자의 개인적인 바람이자 드라마 교육목표 중 하나이다.

중심의 교육”(황정현, 2006, p. 129)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Ⅳ. 나가며

본 연구는 최근 교육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미국 드라마를 가르치는 현장에 교육연극이라는 방법론을 실천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부합되는 방법론인 교육연극 의한 종류이자 테크닉으로써 과정 중심의 공연 만들기 프로젝트를 수행한 수업을 사례로 하여 카이제곱 상관계수를 이용해 교육연극 실행과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분석해보았다. 교육연극이 지향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학습자의 주도적/능동적 활동을 통한 배움, 과정 지향적 학습 목표,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성 등을 염두해 두고 공연 만들기 프로젝트를 미국 드라마와 영상예술 시간에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습자들은 교수 강의 위주의 수업이 아닌, 학습자의 주도적 활동에 만족하면서 모둠 활동을 통한 의미생산과 타협의 과정을 겪어 자신들만의 연극공연을 만들어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해당 드라마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고 응답했으며 결과물 지향이 아닌 과정지향인 수업방식에 만족하며 연극을 멀게만 느꼈던 학습자들이 좀 더 친근하고 다가갈 수 있는 예술로 받아들였다고 대답했다.

그 동안의 영미 문학교육이 문자해석 위주로 이루어졌던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드라마 장르가 가지고 있는 문학성과 연극성을 해석과 비평으로만 끝내는 것은 그 장르의 특징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많은 드라마 담당 교수들이 드라마를 무대로 옮기는 실습을 수업시간에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교육연극 방법을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학습자의 수업방식 만족도를 전반적인 수업만족도, 드라마이해 증진, 그리고 연극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 요소들과 상관계수 분석을 통해 연구. 조사하였다. 결론적으로 교육연극이라는 교육방법론이자 방법이 미국 드라마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구체적인 설문문항을 통해 증명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강인애, 최정임, 장경원. (2006). 구성주의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국내외연구 동향 비교. *교육공학연구, 22*(4), 105-135.

김문기. (2006). 공연 중심의 셰익스피어 극 교육론: 쟁점과 대안. *영미문학교육, 10*(1), 5-24.

김인표. (2002). 영미드라마 수업의 실용성 제고 방안 연구. *영미문학교육*, *6*(2), 157-184.

민병욱, 심상교. (편). (2000). *교육연극의 이론과 실제*. 서울: 연극과 인간.

방영주. (2006). 교사-학생간의 홈페이지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학습의 효과. *영어어문교육*, *12*(3), 187-210.

어도선. (2004). 영미극 교육과 의사소통 접근법: 영문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영미문학교육*, *8*(1), 89-118.

우미성. (2006). 현대희곡과 소수적 감성: 커리큘럼의 현황과 문제점, 작품선택의 정치학. *영미문학교육*, *10*(1), 25-43.

이수동. (2007). 교육연극을 기반으로 한 문학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정문영. (2006). 공연 교수법을 통한 영미드라마 가르치기. *영미문학교육*, *10*(1), 45-66.

정성희. (2006). 헤스컷 교육연극이론의 구성주의적 조망. *한국연극학*, *29*, 225-261.

최성희. (2006). 문화연구로 영미드라마 가르치기: 텍스트/공연, 고급/대중예술의 이분법을 넘어서. *영미문학교육*, *10*(1), 67-84.

한귀은. (2002). 21세기 교육연극의 정체성 모색을 위한 학제간 논의. *한국극예술연구*, *16*, 363-393.

황정현. (2006). 희곡문학 장르의 교육과정 개정 방안. *문학교육학*, *20*, 111-132.

Ellsworth, E. (1997). *Teaching positions: Difference, pedagogy, and the power of addres*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Freire, P. (1994).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Pavis, P. (1992). *Theatre at the crossroads of culture*. New York: Routledge.

Rodrigues, R. J., & Badaczewski, D. (2001).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A Guidebook for Teaching Literature* (박인기, 최병우, 김창원 역). 서울: 박이정.

Tae-Eun, Kim. (2008). What research says about using literature for English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14*(3), 155-181.

부 록

교육연극을 활용한 희곡교육 관련 설문지

번호	내 용	절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당신의 성별은? (남: 1, 여: 2)	1	2	3	4	5
2	당신의 나이는? (1: 17-19, 2: 20-24, 3: 25-29, 4: 30 이상)	1	2	3	4	5
3	나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많다.	1	2	3	4	5
4	나의 영어 실력은 좋은 편이다.	1	2	3	4	5
5	이 수업의 예상 성적은? (1:F, 2: D, 3: C, 4: B, 5: A)	1	2	3	4	5
6	이 수업에 대해 만족한다.	1	2	3	4	5
7	공연 만들기에 나는 열심히 참여하였다.	1	2	3	4	5
8	해당 희곡을 이해하는데 연극실행은 도움이 된다.	1	2	3	4	5
9	희곡을 이해하고 배우는데 연극실행은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1	2	3	4	5
10	조원들과 공연 준비하면서 해당 희곡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1	2	3	4	5
11	공연완성을 위해 희곡 외의 다른 자료를 찾아 공부했다. (예를 들면_____)	1	2	3	4	5
12	공연준비 과정은 편안하고 즐거웠다.	1	2	3	4	5
13	나의 input 과 insight 가 충분히 반영된 공연이었다.	1	2	3	4	5
14	공연 준비전과 후를 비교해볼 때 공연을 통해 조원들간의 친밀도가 더 깊어졌다.	1	2	3	4	5
15	이번 공연 준비를 통해 연극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술임을 알게 되었다.	1	2	3	4	5
16	강의위주의 수업보다 내가 직접 참여한 수업이라 배운 것이 더 많다.	1	2	3	4	5
17	공연 준비하는데 담당교수의 조언이 더 필요하다.	1	2	3	4	5
18	미드라마와 영상예술 수업 기간 중에 가장 의미있는 것은 공연준비와 공연이다.	1	2	3	4	5
19	다른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과목이다.	1	2	3	4	5
20	우리조의 공연을 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1	2	3	4	5

21	공연준비과정을 통해 영어실력이 향상되었다.	1	2	3	4	5
22	본인의 전공은 무엇인가요? _____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이용희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Tel: (033) 250-8142
Email: joyinknu@kangwon.ac.kr

Received in January, 2009
Reviewed in February,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in March, 2009